

2024년 제3차 광주매일신문 독자권익위원회

광주매일신문 제9기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강동완)는 23일 오전 본사 TV 스튜디오에서 '2024년 제3차 독자권익위원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도 국제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제언, 광주·전남 현안사업'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지면 제작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독자권익위원회의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주

“광주·전남 현안 관련 슬기로운 해결책 제시 힘써달라”

◇제9기 독자권익위원

(기나다순)

- ▲강동완 前 조선대 총정위원장
- ▲김경태 광주대 대외협력처장
- ▲김영기 광주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원장
- ▲박웅 광주경찰청 안보수사과장
- ▲오주섭 광주경찰청 수사처장
- ▲윤경철 전남대병원 부원장
- ▲윤창욱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 ▲정진희 광주여성단체협의회장



광주매일신문 제9기 독자권익위원회는 23일 오전 본사 TV스튜디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도 국제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영근 기자

▲강동완 위원장=무더위가 지나고 선선한 날씨 속 올해 3번째 독자권익위원회 회의가 마련됐다. 오랜만에 위원님들을 뵈게 돼 반갑다. 지난 3개월간 지면을 통해 관심 있게 살펴본 부분에 대해 말씀해달라.

▲정진희=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최근 개막했다. 민주 시민정신과 문화예술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그동안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온 광주비엔날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도 좋겠다. 광주 전역이 세계 미술축제의 현장이 됐다는 점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보도했으면 한다.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작해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경철=의료 측면의 지역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주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발표가 있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문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내 중증 환자 비율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중증환자 비율을 70%까지 늘리고 일반 병상을 15% 줄인다는 게 세부내용인데, 서울에선

가능할지 몰라도 2차병원원이 턱없이 부족한 광주·전남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지역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숙아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에선 원정분만이 현실화되고 있다. 의료체계가 무너진 지역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 의료계 정책을 집중 보도했으면 한다.

▲박웅=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문제는 20년 가까이 답보 상태다. 특정지역의 반대로 정체를 빚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서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정치적인 이익을 생각하기에 앞서 미래세대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줘야 한다. 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차도는 높낮이가 맞지 않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요소다. 공사 진행이 이저럼 지연되는 이유와 진척 사항 등을 구체

적으로 파악해 보도한다면 지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주섭=결국 실리와 지역사회 역할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광주 군공항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우리 지역

규모의 행사였는데 과연 도시 브랜드 차원에서 도움이 됐는지는 의문이다. 반면 부산의 경우, 현재 많은 국제행사를 유치·기획해 도시 활성화를 특특히 수행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선 광주비엔날레라는 우수한 국제행사가 2년마다 열린다. 30년 간 그 명맥을 유지하며 굉장히 높은 국제적 인지도를 얻고 있는 축제다. 그에 비해 많은 시민들이 비엔날레를 향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국제적인 행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준다. 광주비엔날레 발전을 위해 광주시 차원에서 행정적 관여는 줄이되 꼭 필요한 지원만 이뤄졌으면 좋겠다.

의료계 정책·광주 군공항 등 주요 현안 심층 취재 필요 국제행사 광주비엔날레 생생한 보도 관심 이끌어내야 수요혁신 통한 소비진작...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고민을

민간공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광주의 경우 군공항에 민간공항이 얹혀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를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여기에 시장이나 도시사를 비롯해 정치인들이 감정적으로 발언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포함된 발언을 해선

▲윤창욱=10년 전 광주에서 국제행사인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렸다. 큰

함께 토론한 적이 있다. 이러한 사례처럼 언론 차원에서 광주시와 시의회 등 기관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론회를 함께 제안해줬으면 한다.

▲김현성=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수요 혁신을 통해 소비진작을 이끌어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하고 수요할 수 있는 고민이 시급하다. 공공조달을 지역상품과 어떻게 적극 연계할 것인지 생각해봤으면 한다.

▲김경태=복합쇼핑몰 조성은 일자리, 지역문화 불균형 해소 등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지역상권 어려움, 교통문제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복합쇼핑몰 조성에 따른 제반 문제를 고려해 슬기로운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 여기에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AI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는 주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보도를 바란다.



강동완

김경태

김영기

김현성

박웅

오주섭

윤경철

윤창욱

정진희

/정리=최명진 기자

2024 Art Bank '예술을 선물합니다'

2024. 9. 27. (토) - 10. 6. (일) | 광주 동구 ACC디자인호텔 1층 갤러리

작품판매전

일상 속의 소중한 순간을 기쁨으로 기억하는 작가

서울만한 크기의 작은 나라 싱가포르를 세계 여러 인종과 음식, 종교, 교육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다양성이 정체성인 나라에 살고 있는 이들의 삶에 대한 나의 관심은 10년째 자연스레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나에게 아름다운 주제는 늘 사람이고, 이 아름다운 것들은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사람의 일상이 다채롭듯이, 나의 작품 속 이야기를처럼 우리의 삶이 알록달록 컬러처럼 달고, 다채롭고, 조화로우면 좋겠다.

지니킵 작가

Another planet- Mars | 91x61cm | Acrylic on canvas | 2021

- 개인전 6회 (서울, 남양주, 화순, 싱가포르)
- 단체전 다수 (서울, 광주, 목포)
- 아트페어 다수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싱가포르)

|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 문의 | 광주매일신문 062) 650-2079